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적용 가능성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의학정보실

김 경 채

들어가면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한정된 재화나 우월한 가치를 획득하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 질주하는 무한계도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고 튼튼한 자아와 자기존중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로 치달게 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극복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적 빈곤과 질병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곤 한다.

보고에 의하면 일생을 통해 국민 3명 중 1명 가까이가 니코틴·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만큼 우리 사회는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산업사회에 이어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 및 도전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불안감과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달은 성모랄 붕괴와 폭력성을 야기하고 있고, 경제구도의 조정에 따른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식기반 사회는 과도한 교육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광고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에 따

르면 헝가리, 일본, 핀란드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개인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21세기의 첨단문명 사회에서는 정신이 황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립감과 공허감으로 더욱 황폐해져가고 있다. 마음의 상처도 상처려니와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 간병인, 간호사, 의사, 의료인들을 위한 독서치료는 우리 의학도서관 사서들이 깊어지고 나가야 할 크나큰 몫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은 물론 위장병과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성 질환이 늘어가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까지 오게 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독서치료>를 연구하고 그 중심으로 의학도서관이 앞장서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삼 후회스러운 것은, 나와 친구처럼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던 5살 위의 언니가 있었다. 그 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무려 5년 간 투병하다가 결국은 올 봄에 세상을 떠났다. 두 가슴을 도려내는 대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언니는 재발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발 빠른 치료에 임하지 못했고 말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되어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게 되고, 중환자실을 들어가고, 일반병동으로 내려오기를

수 차례……. 어느 날, 퇴원 길에 언니가 말했다. “어찌나 온몸이 쿡쿡 쑤시는지 이렇게 계속 아프려면 차라리 콧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경채야, 그래도 나 죽지는 않겠지?” “그럼, 언니. 힘내라!”

언니는 일반병실에서 입원 중일 때 몸을 좀 추스릴만 하면 늘 책을 찾았고, 나는 ‘어떤 책을 골라 주는 것이 언니가 가장 읽기 쉽고, 편하고, 그리고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독서치료를 접하지 못한 나는 책장은 넘기면서 혹시, 책 속의 내용(암, 남편과의 문제, 아이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이 언니의 상황과 비슷해서 더 괴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했다.

<독서 치료>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른 사서들보다 한참 늦게 의학도서관에 입문하게 되어 나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의학도서관 고유의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병원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접목 해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까지 눈을 돌려보리라’는 마음속으로부터 작은 꿈틀거림도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찌면 나와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언니를 떠나보내면서 내가 사서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씻어보려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다.

독서 치료는 궁극적으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영역의 확장에 알맞은 것이 아닌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던 아픈 마음의 상처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랐다.

독서 치료의 이해

1. 정의

독서치료(Bibliotherapy)란 말의 어원은 ‘biblion

(책, 문학)’과 ‘therapeia (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라는 그리스어의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독서치료는 문학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독서가 인간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BC 1300년경 이집트 람세스 2세는 ‘테베’에 있던 자신의 궁전에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을 “영혼의 치유장소(The Healing Place of the Soul)”라고 불렀다고 한다. BC 300년경 고대 그리스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을 위한 약(Medicine (Remedy) for the Soul)’이라는 현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책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책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치료의 힘을 통해 생활이 질적으로 풍부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독서치료는 많은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독서상담(bibliocounseling)과 독서교육(biblioeducation), 독서심리(bibliopsychology), 개인그룹치료(tutorial group therapy), 도서관 치료학(library therapeutics), 독서예방(biblioprophylaxis), 문학치료(literatherapy) 등이다.

웹스터 사전은 독서치료를 “직접적인 독서를 통한 개인적 문제의 해결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병원과 도서관협회는 Websters 3판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1)의 사전적인 정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정신의학과 의학 분야에서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읽기 자료를 사용하고, 지시받은 대로 읽음으로써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며,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이고, 사회적인 긴장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독서치료에 대한 광범위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며 정신의학과 의약 분야뿐 아니라 사회와 교육영역 안에서 독서치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독서를 심리나 정서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며,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중반이후로 미국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독서 치료의 정의는 정신의학 관점에서는 「Dock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에서 “독서치료는 신경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도서들을 선정하고 그 도서를 읽는 행위이다.”라고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다. 또한,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는 “독서치료란 정신의학과 심리학분야에서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독서자료를 선정하고, 지시 받은 대로 읽음으로써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며,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이고, 사회적인 긴장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정의한다.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Tews는 “독서치료란 치료자가 선정된 독서 자료에 의하여 환자의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며, 독서치료를 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쌓은 사서의 협조를 얻어 기술적으로 독서자료가 처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병원이나 정신과 등 의학 분야와 연계한 독서치료 영역은 학교, 교도소,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로 적용되면서 ALA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 “독서치료는 정신적, 정서적 장애와 사회적 부적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계획되고 수행되는 직접적인 독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보조물로서 도서 자료와 다른 읽기 자료의 이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독서치료란 「Dictionary of Education」에서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책을 사용하며, 책은 독자의 성격을 측정하고 적응과 성장, 정신적 건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책과 독자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그리고 선택된 독서 자료에 내재된 생각이 독자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질병에 치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Berry는 “독서치료란 시에서부터 단편소설, 자서전, 개인의 일기, 생활사 등등에 이르기까지의 가능한 모든 문학적

형태를 포함하는 문학작품들을 가지고, 치료자와 참여자가 문학작품을 같이 이해하고 나누는 상호작용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

위와 같이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는 정신의학 분야의 관점에서부터 문헌정보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등 다소 강조하는 부분이 정신보건 측면이나, 독서자료 측면이나,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교육적 측면이나, 상호작용 기술 등 상담 측면이나에 따라 약간의 정의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독서치료 관련 연구에 학문영역으로 구분되는 등 학제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 목적

독서치료를 통하여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삶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상황이나 환경은 변함없다. 그러나 직면하기 싫어 무의식중에 감추어 두었던 상처가 드러나고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책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처를 관통하는 것이다. 책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독서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 연구회에서는, 『독서치료』에서 독서 치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 독서치료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책을 읽는 어린이 개인에 대한 통찰과 자기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2) 개인의 통찰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 3) 매일 매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 4)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나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5) 다른 사람들과의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6) 일반 어린이 등과 다른 특별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보를 제공해 준다.
- 7) 어린이에게 책을 읽는 동안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3. 발달

미국에서 독서치료가 일찍 발달하게 된 데에는 첫째, 종교적인 영향으로 환자들에게 성서나 종교서적을 읽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전쟁에 의한 영향으로 제1차 세계 대전에 의해 육군병원이 발달하고, 적십자나 구세군의 국제적인 조직 활성화에 의해 환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가 실제화 되기 시작하였고, 세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독서치료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게 하였다. 셋째로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 연구가 체계화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환자 봉사를 위한 병원도서관은 물론 일반 도서관의 발달이라고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에서 독서치료가 일찍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이라 할 수 있으며 1900년부터 1958년까지 발표된 논문 수만 하더라도 600여편에 이르고 있다.

독서치료가 문헌정보학의 한 분야로써 최초로 인정된 시기는 1904년 Massachusetts Weverly에 있는 McLean Hospital 도서관에서 독서자료를 통한 환자 치료에 전문가인 사서가 임명된 시기라 할 수 있다. Sadie Peterson Delaney는 흑인여성이면서 사서로서 독서치료의 선구자라 할 정도로 독서치료는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로서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bibliotherapy를 독서요법이라고 번역하여 1937년경부터 사용하였으며 독서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에 阪本人郎가 쓴 「독서지도」라는 책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실시된 독서치료와 그 연구는 두 가지 흐름인데 그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과 생활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성격지도 방법으로서 독서치료를 도입,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 미국과 다르다. 또 하나는 실제 현장에서 특히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한 사례들을 다루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63년에 성격형성이나 문제행동을 치료할 때 필요한 도서목록, 즉 문제유형에 맞는 도서목록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1966년에는 阪本人郎 등에 의해 「독서요법」이라는 입문서가 출판되었다.

우리나라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1964년에 Hannigan의 ‘도서관과 비브리오테라피’를 유중희가 번역한 것을 국회도서관보에 실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독서치료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까지 그 연구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 아동학, 상담심리학 분야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그 외 신학, 문학,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국내 독서치료 연구는 단행본 23권, 학위논문 60편, 학술잡지기사 70편으로 총 153편으로 외국의 독서치료 관련 연구에 비하면 미비하지만 현재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4. 현 단계 독서치료

연구 활동은 현재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산대학교 김정근 교수의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독서치료학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 및 유아심리, 교육학 쪽의 활동이다. 김정근 교수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원 과정에서 독서치료와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와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2002),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 치유서 안내」(2003)라는 두 권의 학기 논고집을 대학원 과정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고, 7편의 석사논문을 지도하였다. 이 중 5편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며,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치료사 과정을 이끌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독서치료를 배운 사서 및 교사들이 각각 독서치료 적용을 시도(부산 남구도서관, 울산 남

부도서관, 경남 창녕도서관, 양산도서관)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독서치료학회는 2003년 3월 한국어린이 문학교육학회에서 독립하여 구성된 학회이다. 현재 분과 모임의 결과물로 「독서치료」(2001, 학지사), 「독서치료의 실제」(2003, 학지사)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월례모임을 개최하고, 분과 모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시치료분과 한국시치료연구소 최소영 소장이 Poetry Therapy의 권위자 John Fox. 교수 방한을 계기로 제1회 서울 국제 시치료 학술대회 및 워크숍(주제; 고통을 넘어서 복지의 소통으로-암환자와 가족, 친구, 간병인을 위한 시치료-)을 개최하였다. 2004년도에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문학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석·박사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었다.

민간 활동으로는 ‘신성회’의 독서그룹 모임과 이영식 목사의 홈페이지를 들 수 있다. 신성회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서치료 기관으로 1990년부터 가정생활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책 3권과 테이프를 3개월 단위로 우송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독서그룹 모임을 갖는다. 동역기관(정동섭가족관계 연구소, 가족사랑 연구소)과 20여 곳의 협력기관(교회 등 기관의 독서모임)을 갖고 있다. 신성회 상담실장이영애는 「책읽기를 통한 치유」라는 저서에서 신성회의 활동과 여러 사례들을 통해 독서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영식 목사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 독서치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88년부터 운영되었고, 자신이 번역한 독서치료 관련 글, 자료, 국내 연구자료, 독서치료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글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자료가 눈에 띈다. 또한, 문헌정보학 이외의 영역에 대한 글도 있으므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활동 외에도 여기저기서 독서치료 관련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고 있고 전국 의 대학교 산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에

서 독서치료사 강좌가 생겨나고 있다. 거의 모든 강좌의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일색이다. 독서치료의 정의와 목적, 과정, 자료 선정기준과 평가, 독서치료사의 자질, 상황에 맞는 책 고르기, 상담연습, 독해력 향상, 독서상담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독서치료사가 되어 가르칠 사람들이 자신들은 경험도 해보지 않고 가르치려 들고 있다. 개개인이 책을 읽고 그 가운데서 인식-보편화-동일시-카타르시스-통찰이라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 경우는 극소수이다. 이 부분에 있어 현재 이영애의 ‘신성회’와 부산대학교 김정근 교수가 이끄는 대학원 과정의 수업과 평생교육원 독서치료사 강좌는 주목할 만하다. 단지, 독서치료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이론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책을 읽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경험과 상처들을 드러내어 새로운 통찰과 자기 이해를 얻는 것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김정근 교수는 대학원 수업과 평생교육원의 독서치료사 강좌를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의 세 단계로 구조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개개인이 직접 제시된 책을 읽은 후, 자신에게 그 책이 어떻게 다가왔으며, 내면에 일어난 변화는 어떠한지,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적당한 분량으로 글을 써 온다. 그리고 수업이나 강좌 당일에 치유적 글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열어 보이며, 표현하고,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토론하는 단계이다.

5. 스캇 펙(M. Scott Peck)

스캇 펙은 미국의 정신과의사다. 생존 인물이며 현재 북부 코네티컷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책 가운데는 그가 정신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접하면서 수집한 사례들을 통하여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장애의 현장을 들여다본 것이 많다. 대표작이 ‘아직도 가야할 길’(신승철/이종만 옮김, 열음사, 1991)이다. 스캇 펙의 책은 읽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는 상처를 의식의 표면으로 건져 올리는 힘이 있다. 독자는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독서치료에서는 스캇 펙 계통의 책을 자가치유서(self-help book)라고 부른다. 문학자료와 대비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독서치료에서는 픽션(fiction)에 많이 의존해 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자인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치료 참여자는 픽션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상황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화(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근래 상황이 다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자가 치유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중에는 상황에 따른 자가치유서 자원이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있다.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 면이 있다. 어떤 연구는 픽션보다 자가치유서가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서치료에서의 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정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실 독서치료 모임에서 ‘치료사’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서행위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황에 맞는 치유서이다. 좋은 치유서를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에서의 경험으로 보아서도 적절한 치유서를 만난 날의 모임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다.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따른다.....”

따라서 무슨 책을 어떤 상황에서 읽도록 안내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책을 서지작업화시켜 놓는다면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도구가 제대로 마련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 독서목록 작업은 생각할수록 뜻 깊은 작업이었다.

6.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 독서목록

우리나라의 현실은 독서 치료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갖춘 서점이나 도서관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국고 지원으로 상황별 독서목록을 만들기로 하고, 본 협회의 전문분과위원회의 하나인 독서진흥위원회에 이 일을 위촉하였다. 1999년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상황별 독서목록-아동 청소년편’에 이어 2004년도에 ‘상황별 독서목록-성인편’을 발행하였다.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의는 첫째, 도서관에서의 실효적 통정을 실현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패트릭 윌슨(Patrick Wilson)의 주장에 의하면 도서관에서의 서지통정에는 기술적 서지통정과 실효적 서지통정이 있으며 지금까지 서지통정이라는 이름아래 도서관이나 서지작성자가 준비해 온 것 중의 대부분은 기술적 통정에 해당된다.

둘째, 독서치료를 위한 실효적 서지통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별 독서목록에는 기술적 서지통정 도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인적 요소가 개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셋째, 상황별 독서목록은 ‘가장 좋은 책’들의 모음이고, 그 책들은 단행본과 같은 출판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물리적인 단위보다는 내용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상황별 독서목록은 독서치료를 위한 서지도구이다.

넷째,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의는 서지의 개별화에 있다. 서지의 개별화란 어느 서지통정이 대상으로 하는 독자를 최대한 한정하는 것으로서 ‘전형적 이용자’를 설정하지 않고, 개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문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바로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개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서지이며, 그 책들을 모아 별도의 장서를 구축,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 자체는 그들에게 맡긴다. 별도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구축된 장서 중에 해당되는 도서를 상황별로 뽑아 함께 읽고 경험을 나누며 치유의 과정을 밟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독서치료의 일반적인 봉사형태이다. 치유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상황별 독서목록(성인편)을 참조할 것).

1)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2)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해(상처의 뿌리, 성장의 아픔,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생활 속의 상처), 3) 성격과 정서(수줍음, 슬픔, 화, 자기학대, 우울증, 대인공포증, 강박증, 알코올 중독, 성인아이, 성폭력, 용서, 사랑, 자아 찾기), 4) 건강과 질병, 죽음(나이 듦, 죽음), 5) 가정/부부관계(여자와 남자, 결혼과 이혼, 가정위기, 가정폭력), 6) 가정/가족관계(아들과 딸, 부모, 조부모, 형제, 가부장사회), 7) 직장/사회(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 내 성차별, 스트레스, 슬럼프, 실직, 성공)

7. 독서치료 발문

1) 돌과 돌(Bath Doll & Caroll Doll)유형: 동일시-카타르시스-통찰: 돌과 돌의 발문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충실한 가장 일반적인 독서치료 발문유형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독서치료 활동에 적절한 발문이다. 자료에 대한 흥미 유발, 마음열기→동일시(투영 및 섭취)→카타르시스(분출과 해소의 단계)→통찰(자기 적용 및 문제해결 모델 찾기)

2) Hyness와 Hynes-Berry의 유형: 인식단계-고

찰단계-병렬단계-자기적용: 하이즈와 하인즈 베리의 발문은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적절한 발문으로 아동의 인지, 정서적 발달단계를 고려하면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발문 유형이다.

3) Watson의 유형: 문자단계-추론단계-평가단계-창조평가: 이 유형은 독서 자료에 자체에 대한 인지적 이해 문항과 더불어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라는 독서요법의 기본원리를 토의 문항에 포함시켜 발문을 구성한다.

독서치료 발문 시 유의할 점은, ① 시작은 가능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능한 개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③ 연속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④ 책에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⑤ ‘왜’를 사용하는 질문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⑥ 내담자의 답변을 잘 파악하고 반응정도에 따라 제시할 발문의 수와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며 진행해야 한다.

8. 도서관의 대응 방안

경남 창녕도서관은 2002년 4월에 「마음을 치유하는 책들 모음」과 2002년 9월에 「마음을 움직이는 책들 모음」이라는 독서목록을 발간했다. 조명숙 관장은 “마음을 움직이는 책들 모음”이라는 코너를 도서관 입구 가까운 곳에 만들었더니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코너의 책을 1~2권 정도 항상 같이 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울산 남부도서관은 김순화 열람팀장을 중심으로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독서목록」을 발행하였고 독서치료 관련 도서를 선정해 별도의 코너도 마련해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이 두 도서관에서의 시도는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적용 방안

병원과 관련한 도서관은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의학도서관(Medical Library)이란 의학 분야의 학생,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해주는 도서관으로 주로 의료진들이 이용대상자들이다. 그리고 병원도서관(Hospital Library)은 병원의 직원과 환자들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의학도서관이라기보다 병원도서관이 더욱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이운우는 논문에서 상당수 병원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시도하기에는 부정적이었다고 말한다. 치료사는 원목일수도, 의사일수도, 간호사일수, 상담가일수도, 자원봉사자일도 있다고 가정하면, 책을 목록 관리하고, 구입하고, 조직하고, 정리하는 사서가 실제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며,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희망을 나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의학도서관의 또 다른 서비스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학도서관협회(MLA)에서는 병원도서관을 “병원 의료진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서 및 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라고 하였고, 미국도서관협회(ALA)산하 병원 및 공공기관도서관협회(AHIL)에서는 “환자에 대한 도서관봉사는 병원도서관의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리스(Alan M. Rees)와 버거(Carol Berger)는 그들의 저서에서 “병원도서관은 환자의 치료와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료진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며, 병원 도서관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의학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독서치료 연구물은 70년대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나,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이다. 문헌정보

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전 단계인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독서치료를 다룬 김수진의 연구와 병원도서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 장귀녀의 연구, 그리고 병원도서관 봉사의 영역으로 독서치료의 정의와 역사를 언급한 이미경의 연구가 독서치료와 신체적 질병의 관계를 언급한 연구물의 전부이다.

독서치료용 독서자료는 도서뿐만 아니라 비디오, 만화,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서자료 선정에 있어서는 상황별 독서목록(아동·청소년편), 상황별 독서목록(성인편)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독서치료는 단 시일에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풍부한 독서자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인 독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독서 치료사, 독서 치료 전문가

한국독서치료학회에서는 독서치료사와 독서치료전문가를 구별하여 자격요건을 회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자격구분)

자격은 독서치료사와 독서치료 전문가로 구분한다.

1. 독서치료사: 독서치료사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발달적으로 필요한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고, 독서치료 전문가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를 도와 치료에 보조자로 임할 수 있다. 독서치료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눈다.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2급으로,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수련과정을 모두 거친 사람은 1급으로 한다.

2. 독서치료 전문가: 독서치료 전문가는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나 정신건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등의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다.

제 4 조(자질)

독서치료사와 독서치료 전문가는 자아 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인내심, 기지, 융통성, 현명

한 판단력, 한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고, 독서치료 자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평생 학습을 할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5 조(수련분야)

독서치료사와 독서치료 전문가는 명시된 수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 대학과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해당 과목과 독서치료 관련 학회, 세미나, 연수, 해당 기관에서의 실습 등에 참가한 경력은 본 회의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국독서치료학회 홈페이지 <http://www.bibliotherapy.or.kr> 참조할 것.)

2. 교육기관

독서 치료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담당사서의 전문성이라고 생각된다. 사서가 독서치료를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정신보건간호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처럼 일정한 훈련을 받아 적극적인 입장에서 독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계도 정신보건간호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처럼 정신보건을 담당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교육과정을 통해 정신보건 특히 독서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사서를 배출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5년 4월 25~29일 독서치료기초과정으로 사서선택교육이 있었으며, 11월 7~11일 독서치료전문가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8월 9~11일에는 대림대학 황금숙교수가 진행하는 독서치료 단기과정도 있으며, 한국독서치료학회나 (사)한우리독서치료연구회의 독서치료사과정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는 독서치료 전문가 1년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충남대, 신라대, 전남대학교의

사회교육원에서는 독서 지도사 심화과정과 독서치료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숙명여대 사이버 대학원의 아동교육 전문가과정에서는 아동독서치료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한국심성교육개발원은 독서치료과정을 개설하여 독서치료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 대학원과정으로는 경북대학교의 문학치료학과가 2004년 1학기부터 석·박사 과정으로 개설되었고, 관련학과로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독서교육학과와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독서지도학과가 석사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3. 독서 치료 대상

전 세계적으로 매년 9백만 명의 인구가 암에 걸리며 이 가운데 5백만 명이 사망한다. 앞으로 25년 안에 암 발생인구가 약 3억에 달할 것이며 그 중 2억의 인구가 사망할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172명의 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암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25.6%를 차지할 만큼 암은 사망원인 1순위에 있다. 암 투병으로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 친지들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암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입원 환자의 불안 중 암 환자의 불안이 가장 높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삶의 질 향상 연구과장은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고려의대구로병원,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등 8개 기관의 암 환자 380명과 환자 가족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말기 암인 경우에 그 사실을 환자에게 숨기지 말고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암 통고에 대한 환자의 경우 96.1%, 환자 가족은 76.9%가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물론, 의사와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적절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으나 아무래도 모든 환자들의 필

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신의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없어 여러 수기들을 읽으며 희망을 가졌다는 말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암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들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는 두려움이다. 죽어 간다는 두려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두려움, 치료 결과와 존엄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겁쟁이로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두려움은 불안을 동반한다. 또한 의사와 친지들이 '사실대로 말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등은 주로 질병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서들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나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으로 분노나 자기 연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마지막 단계는 치료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빠져드는 외로움이다.

암은 가족질환이다. 가족의 정서로는 '내가 더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더라면...'하는 생각이나 후회, 결혼 생활에서의 불협화음, 부정행위, 더 이상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정보요구와 가족들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독서 치료가 개입할 수 있다. 정보 요구는 정보적 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적 지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의 증진뿐 아니라 불안, 우울, 불확실성, 기분, 만족감 등 정서적 적응의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들이 투병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지이외에도 의료진의 지지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하느님이 도우셨어...", "걱정마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살려 드릴테니까", 이런 한마디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 환자나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은 담당 의료진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표정까지 읽으며 자신의 치료에 희망을 걸고 있다. 어떤 환자는 의사의 한 마디가 그

날 컨디션을 좌우하는 그날의 일기예보와 같다고도 했다.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그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은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이고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윤이는 『정신병 환자에 대한 시치료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치료를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정신과 환자들의 심리적 재활을 돕기 위한 집단 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써 활용하고자 인천기독교 병원 정신과 환자들에게 국한시켜 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서는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세 남성 5,971명을 대상으로 '인격장애 자가진단' 설문 응답에 한 결과 44.7%가 총점 99점 중 인격장애가 의심되는 기준점인 30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집단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단적인 결과이다.

K-CDI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를 전국의 남녀 6,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루어진 역학조사에 의하면, 첫째, 조사대상의 약 30.9%가 평생 동안 K-CDI에서 조사된 정신장애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 유병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으나 알코올과 니코틴 관련 장애를 제외하면 여성의 유병률이 12.7%로서 남자에 비해 약 1.8배나 높았다. 셋째, 가장 흔한 정신장애는 물질(알코올, 니코틴)관련 장애이며 다음으로는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증적 장애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유병률이 결혼상태의 집단보다 별거, 이혼, 사별한 집단에서 더 높았고 도시 거주자보다 농촌거주자에서 약간 더 높았으며 나이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았다. 그 밖에도 한국인의 문화 특수적 증후군으로 화병, 신병, 가해의식형 사회공포증, 신체화 경향, 정신분열증의 망상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교육현장에는 학생들이 주의가 산만하여 학습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해 장애를 유

발하고,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아동기 과잉행동의 증후들을 공인된 정신장애 진단기준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ADHD)라고 분류하고 있다. 최근 ADHD 학생들의 독서치료가 제안되고 있는데, 독서 치료는 책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적 질병의 치료와 건전한 인격 형성 및 가치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배성연은 「독서치료가 ADHD 학생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독서치료가 첫째, ADHD 학생의 주의력결핍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ADHD 학생의 과잉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ADHD 학생의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4. 독서치료 적용 방안

1)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과 사서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아프고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그 아픔을 고쳐야 하며, 치유서를 읽는 것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2) 독서치료에 효과가 있는 독서목록을 만든다. 도서관간의 활발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3) 독서치료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 구청, 시청 소식지, 회보에 광고나 안내문을 게재하기도하고 도서관 이용교육에 포함하기도 한다. 4) 독서치료 코너를 만들어 이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구조적 조직을 갖춘다. 5)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한다. 프로그램은 개인요법과 집단요법이 진행될 수 있고, 전문적 능력이 갖춰진 정신보건사서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이다. 6) 정신보건관련기관과 연계한다. 학교에 있는 상담실, 보건소,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전문병원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 등에 홍보하고 목록 제공,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다. 7) 학회지 등에 논문 투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독서치료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한국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치료를 개별도서관에 인식시키고 파급시킬 중재 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장귀녀는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병원 사서들이 독서요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업무가 많고 바쁘다는 이유와 독서요법은 자신들의 봉사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차례로 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서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학사서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자봉사의 목적을 알아보고, 어떠한 독서요법 활동이 있는지의 조사에서는 원목실에서 환자에게 독서 자료를 권하는 목적은 주로 영적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것으로 92.3%를 보였고, 나머지는 질병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 23.1%, 오락목적 7.7%로 나타났으며, 원목실은 모두 도서관과는 별도로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서, 도서관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38.5% 뿐이었다고 한다.

「품행장애 청소년 독서치료 사례」(독서치료학회 월례모임 발표자료)에서 이임숙은 만 14세 청소년 ○○○군의 독서치료 목표로 자존감의 증진, 사회 관습적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판단능력 향상을 위한 가치관 훈련, 사고력의 증진을 위한 사고력 기술 훈련, 분노조절 능력 키우기,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와 행동하기 훈련을 세웠고 그 결과, ○○○군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고,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으며, 먼저 반응을 표현할 줄 알고, 예전과 달리 생각하는 방법과 대처 기술에서 향상이 이루어졌고, 체계적이고 사고방식이 많은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워나갔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의욕적 태도를 갖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특정상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성회’라는 가족정신건강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영애는 한 모임의 최적 인원수는 진행자를 포함하여 5명이 적당하다고 권한다. 그리고 8명이 넘을 경우에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두 모임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한다.

5. 처방할 수 있는 책

1) 암에 대한 통찰과 지침 -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라(중앙 M & B, 2001)

가까운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가까운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태동출판사, 2000)

2) 고통과 죽음에 대한 통찰 -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월간조선사, 2004), 고통의 문제(홍성사, 2002),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세종서적, 1998)

3) 수기와 투병기 - 한나의 선물(해냄, 2002)

4) 동반되는 정서적 문제 - 암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학지사, 2003), 털어놓기와 건강(학지사, 1999)

(이운우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독서치료 적용 가능성』 논문 참조할 것)

6. 사이코드라마의 적용

독서치료에서의 6가지 주된 목표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통찰하고, 토론하고, 가치들과 태도들을 나누고,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자각하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정신치료법과 목표가 비슷하다. 독서치료에서 정보 제공형 독서치료, 상담자와 내담자의 촉진적 관계를 강조하는 Interactive Bibliotherapy, 문학작품 자체를 강조하는 시치료, 자기조력적 독서치료, 글쓰기 치료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서 Interactive Bibliotherapy 치료법에서 사이코드라마적 기법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독서치료에서의 준비단계, 읽힐 자료의 선택, 자료의 소개 단계, 이해를 돕는 단계, 후속 조치와 평가 단계 중 <이해를 돕는 단계>에서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나 문제가 탐색되고 책에서 시도되는 문제들의 해결책 등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극 치료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겠다. 정신과와 협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오면서

좋은 책 한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 예는 얼마든지 많다. 그 만큼 독서를 통한 인간성 회복과 상처받은 자의 치유가 더욱 필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서가 더욱 강조되고 먹고 사는 단순한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생각하는 문화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독서치료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독서치료는 책읽기의 효용성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야로서 책을 무기로 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서가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 개발과 개발된 자료를 알려줄 수 있는 서지목록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독서치료는 그 임상적 학문적 성격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특징이 있다. 막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서관 사서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서는 물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임상에서 환자들을 돕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들과 문학 전공자 등,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문학을 치료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단계이다. 때에 따라서는 독서치료가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우리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책이라는 막강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어느 기관들보다 독서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과 주체가 될 수 있다. 의사나 의료진은 제한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무궁무진한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보석임에 틀림없다. 최근 책임기와 관련한 사회적인 운동과 활발한 움직임도 기대되는 측면이다. 세상의 모든 책이 전자책으로 대체되고 도서관도 필요 없어질 것만 같았던 1990년대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TV와 신문들이 ‘다시 책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의학도서관 이용자들도 프린트 저널위주에서 점차 전자저널위주의 구독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이용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불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서만의 영역이었던 정보검색 등은 이제 모든 이들의 영역으로 잠식되어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의학도서관 사서는 정체성을 잃고 떠도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의료진만을 위한 진부한 서비스에서 벗어나 병원의 내부고객인 교직원과 외부고객인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독서치료가 궁극적으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대의에 맞닿아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와 교직원, 환자, 보호자들과 마음의 상처를 애기하고 어루만져주는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서로의 상처를 치유내지 완화시켜 가볍고, 밝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황별 독서목록이 어린이·청소년편, 성인편이 발간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의학도서관계에서 <상황별 독서목록 환자·보호자편>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독서치료가 우리 의학도서관의 크나큰 서비스 영역임을 재삼 인식하고,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관련 자료 수집 등 문헌정보학, 상담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민간 영역을 아울러 학제간 팀워크를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

축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숙.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 김정근 기획. 감수,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4.
- 2) 신주영.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김정근 기획. 감수,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4.
- 3) 김현희 외 공저.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 치료. 서울, 학지사, 2004.
- 4) 에너쿤들린. 독서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었나? 임옥희 옮김, 서울, 상지사, 2001.
- 5) John Fox. 시치료. 최소영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6) 한윤옥 외. 상황별 독서목록(아동·청소년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9.
- 7) 한윤옥 외. 상황별 독서목록(성인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4.
- 8) 국립중앙도서관. 독서치료기초과정. 서울, 사서교육훈련교재, 2005.
- 9) 한국시치료연구소, 고통을 넘어서 복지의 소통으로-암환자와 가족, 친구, 간병인을 위한 시치료. 제1회 서울국제 시치료 학술 및 워크샵 교재, 서울, 2005.
- 10) 이임숙. 품행장에 청소년 독서치료 사례. 한국독서치료학회 월례모임 발표 교재, 서울, 2005.
- 11) 이미경. 病院圖書館 奉仕에 관한 研究: 환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7.
- 12) 장귀녀.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13) 이운우.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독서치료 적용 가능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 14) 김순화.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울산남부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 15) 배성연. 독서치료가 ADHD 학생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2004.
- 16) 현윤이. 정신병 환자에 대한 時治療 활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2.
- 17) 신주영.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 18) 이재익. 성경적 상담학과 독서치료의 만남: 로렌스 크렘의 이론을 중심으로. 영남 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19) 유명덕. 암환자의 교육요구도와 이해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 20) 최필순. 말기 암환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9.
- 21) 황금숙.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

52 한국의학도서관 : 제 32 권 제 1, 2 호 2005

- 관정보학회지, 2005;36(1):121-141.
- 22) 황금숙. 독서치료교육현황과 문헌정보학의 역할.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 23) 한윤옥.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의와 상황 설정.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4.
- 24) 김순화.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울산남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4.
- 25) 김정근. 김정근의 독서치료이야기 스캇 펙(M. Scott Peck)을 아십니까? 서울, 국회도서관, 2004;41(6).
- 26) 이영식. 독서치료,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www.bibliotherapy.pe.kr, 2004.
- 27) 이영식. 2005년도에 짚어 보는 독서치료의 전망과 과제, 2005.
- 28) 이영식 목사의 독서치료 홈페이지(<http://www.bibliotherapy.pe.kr>).
- 29) 한겨레, 2004년 2월 3일; “암환자 96%, “말기엔 환자에게 통보를”
- 30) 조선일보, 2002년 2월 1일; “국민 3명중 1명 정신질환 경험”
- 31)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http://www.amsamo.net>)
- 32) 한국독서치료학회(<http://www.bibliotherapy.or.kr>)
- 33) 한국시치료연구소(<http://www.poetrytherapy.or.kr>)
- 34)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http://www.hanuribook.o.kr>)
- 35) 신성희(<http://sshbook.org>)
-